

기증한 그릇, 민들레 흩씨 되어...



민들레·2018
출처=www.choijeonghwa.com

모든 것이 예술로...누구나 예술가로

거리에서 만나는 예술, 공공조각-조형물부터 프로젝트까지, 최정화 작가와 공공미술의 다양한 모습들

“사용하지 않는 그릇을 기증해 주세요.”
2018년 진행된 최정화 작가의 ‘모이자 모이자’ 프로젝트를 위한 홍보 문장이다. 많은 사람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여러 종류의 그릇을 기증했고,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밥그릇, 냄비, 프라이팬, 사발부터 대형 점통까지 온갖 종류의 그릇이 모였다. 이 그릇들은 쓸모를 다했거나, 특별한 사연이 있거나 여러 이유를 가진 채 프로젝트를 위해 한 장소에 모였다.
그런데 작가는 이 그릇들을 모아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걸까?
최정화 작가는 이 그릇들을 쌓고 이어 조형적 틀을 갖춘 ‘민(民)들(土)레(來)’(2018)라는 작품을 만들어냈다. ‘민들레’는 7000여 개의 그릇이 연결돼 높이가 약 9m에 이르는 대형 작품으로, 멀리서 보면 제목처럼 대형 민들레 흩씨를 형상화한 듯 보인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작품을 들여다보면 이 작품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오래되고 낡은 그릇들이라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저마다의 모양을 한 그릇들이 쌓이고 연결돼 민들레 흩씨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릇뿐만 아니다. 관객이 모아준 플라스틱 병뚜껑을 꽃의 형태로 만든 ‘꽃의 만다라’(2014), 시민들이 기증한 조명 스탠드로 만든 ‘빛의 목시록’(2019) 등은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서 진행된 ‘모이자 모이자’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작품을 위해 그릇이나 물건을 기증한 사람들은 단순히 관람하거나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품을 만드는 데 협력한 사람이 된다. 또한 작품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작품 제작을 위한 기증과 협력의 과정을 알고 보면 작품을 단순히 그 외형만을 보고 평가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민들레’ ‘꽃의 만다라’ ‘빛의 목시록’ 등은 그 자체로 완성된 하나의 공공미술 작품이지만, 작품을 위해 그릇을 모으고 기증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과

정 자체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기증한 그릇이 작품이 된 모습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작품 자체가 이야기가 되고, 작품을 이루고 있는 그릇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거기에 얽혀 있는 사연을 생각해 보는 과정이 모두 작품의 일환이 된다.
이처럼 공공미술에서 관객 참여와 소통의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라고 부른다. 과정 중심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조형물이라는 하나의 결과물로 완성되는 공공미술과 조금 다른 결을 보인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는 일시적이고 과정 지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다. 공공미술과 결합해 공공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과정 자체가 중심이 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영구적이며 물리적인 개념으로 사용돼온 공공미술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관객 참여를 통해 공공성의 의미를 더욱 확대한 것으로, 공공미술의 다양한 모습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최정화 작가는 다수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릇 외에 조명 스탠드를 모은다든지, 플라스틱 병뚜껑을 모은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작품 재료로 사용될 사물들을 수집하며 관객의 참여를 유도해 왔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바탕으로 한 작품을 미술관 같은 전시 공간 혹은 외부 공간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시해 왔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실제 사용 가능한 작품들을 제작하기도 하는데, 광주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로비에 설치된 작품 ‘Ancestral Landscapes’(2015)는 오방색을 활용한 소파 작품으로 관람객이 직접 앉아 이용할 수 있는 작품이다. ‘Heavenly Heaven’(2015)은 직접 만지고 이용할 수 있는 스탠딩 테이블 작품이다. 이 두 작품은 실용성이라는 측면과 함께 일상생활 속 예술이라

관객이 모아준 작품 재료 ...
제각각인 7000여 개 그릇으로
9m ‘민들레 흩씨’ 형상 만들어
단순 관람에 그치지 않고 협력자로
회색빛 도시에 생명력을...
꽃·과일·나무 등 자연 상징 소재로
일상·예술 경계 허물고 친근함 더해
공공성 의미 확대한 작품 다수 선보여



Flower Tree(꽃나무)·2014·경기 수원 아비뉴프랑. 필자 제공

는 공공미술의 목적과 맥을 같이한다. 이처럼 작가는 예술과 일상의 삶이 경계 없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작품을 통해 일관적으로 그려왔다.
한편 최정화 작가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외에 오브제 형태의 공공미술 또한 전국 각지에 설치해 왔다. 화려하고 생생한 색감으로 제작된 꽃과 과일은 작가의 대표적인 소재로, 일반적 크기가 아니라 확대되고 이미 지화돼 일상 속 사물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한다. ‘Flower Tree(꽃나무)’ ‘Fruit

tree(과일나무)’라는 작품 제목처럼 주로 꽃과 과일, 나무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소재로 제작된 공공미술 작품들은 삭막한 회색빛 도시에서 생명과 자연을 상징하며 보는 사람에게 친근감을 준다. 작가는 이러한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일상을 예술적으로 느끼고 예술을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최정화 작가는 기존의 미술과 달리 하찮고 사소한 것을 소재로 한 실험적이고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며 미술 영역을 확장시키고, 일상 속에서의 예술을 지향해 왔다. 플라스틱 바구니, 병뚜껑, 페트병, 파리와 같은 사물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성품에서부터 꽃, 과일, 나무 등 자연과 생명을 상징하는 소재를 사용한 작품들은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작품에 친근함을 더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작품에 관객을 참여시킴으로써 함께 만드는 혹은 함께 즐기는 작품을 만든다. 관객이 작품 제작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예술 작품의 한 부분에 기여했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예술과 일상이 하나되는 공공미술의 본질적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으며,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작가의 생각은 이처럼 작품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다.
최정화 작가는 현재도 다양한 작업을 선보이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일상 속의 예술을 실천하고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만들어 가는 최정화 작가의 작품은 오브제부터 프로젝트까지 공공미술의 지평을 넓히며 우리의 일상을 예술로 바꾸고 있다.



필자 김유진은 공공미술에 대한 논문을 썼고, 문화라는 전체적 맥락 안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예술을 연구한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학예 연구사로 재직 중이다.